

발차취 따라 걸으면 진면목 보여

님은 자신이 참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스님은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방장으로 취임해 100 일 간 설법했던 백일법문 테이프를 하나 얻어 뒷방에서 혼자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큰스님의 법문을 기침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노트에 옮겨 적었다. 원택 스님의 진정한 시봉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원택 스님은 4년 동안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록하는 일로 참선을 대신했다. 뒤늦게 큰 스님이 그 사실을 알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노여워했지만 그 일이 지금의 원택 스님을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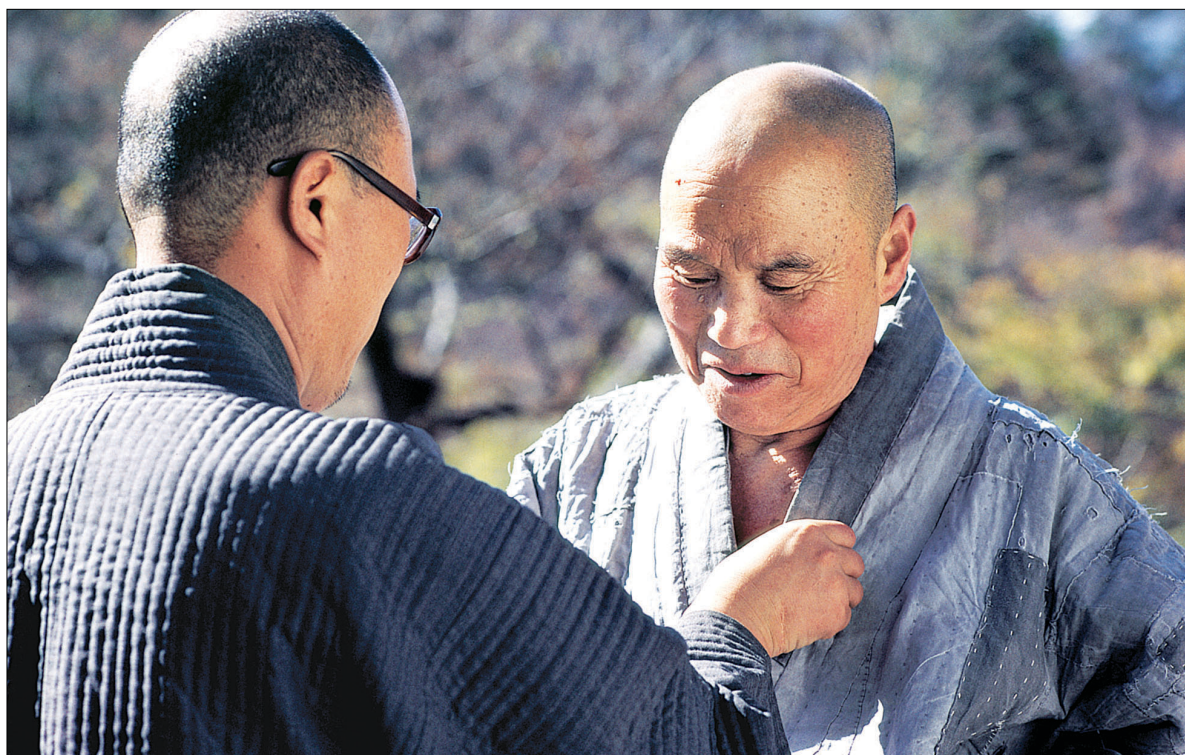
원택 스님이 정리한 <본지풍광(本地風光)-시중 유통은 '산이 물 위로 간다' >와 성철 스님이 직접 논술한 <선문정로(禪門正路)>의 초고가 완성되고, 성철 스님은 원택 스님을 당시 불일암에 주석하고 있던 법정 스님에게 보내 원고의 운문을 부탁한다. 법정 스님이 흔쾌히 승낙했고, 마침내 두 법문집이 출간된다. 그 때 원택 스님은 큰스님의 법문집을 출간하기 위해 불일암과 출판사를 오가며 '출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님의 '길'이 된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큰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제가 곁에서 지켜본 성철 스님의 진면목을 그대로, 제대로 대중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까워서 오랫동안 봤으니까요."

원택 스님의 시봉은 단순히 수발을 드는 것이 아니었기에 남다른 '시봉'으로 남을 수 있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아난'이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듯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여시아문'하고 있는 것이다. 원택 스님은 아직도 스승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스님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남기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언젠가 어느 큰스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문종에도 성철 스님 못지않은 큰스님들 많이 계셨다고. 그런데 그 많은 선지식들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기록의 문제였다. 위대한 것이 있으면 후대에 위대하다고 알리는 것, 곧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을 내는 것과는 다른 일이라고 원택 스님은 말했다. 원택 스님은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혈육도 아닌 큰스님을 정성껏 시봉하고 열반 이후에도 그 일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거창한 시봉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삶과 위대한 가르침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불제자로서 대중에게 '여시아문' 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이라고 했다. 위 두 권을 비롯한 성철 스님 법문집 11권은 그렇게 시작됐다.

끝나지 않는 시봉... 성철 스님 기념사업 전개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후에도 사리탑 조성, 진영과 존상 제작, 성철 스님의 생가를 복원한 겹외사 창건, 성철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포럼 개최했다. 그리고 불교인재원과 함께 순례단을 만들어 성철 스님 수행도량 순례법회를 진행하는 등 큰스님의 흔적을 대중에게 알리는 불사에 매진했다. 2012년에는 성철 스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회고한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를 출간하는데, 본인의 시봉이야기를 통해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대중에게 또 한 번 보여준다. 그리고 오는 9월 22일 겹외



원택 스님(왼쪽)이 스승인 성철 스님의 옷깃을 여며드리고 있다.



성철 스님(가운데)과 원용 스님(왼쪽), 원택 스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에 성철 스님 기념관을 설립하고, 9월 말 경에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증보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성철 스님 기념관은 다른 기념관들과는 달리 법당 형식으로 된 기념관이다. 스님을 따르는 대중들을 결집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불사다. 그리고 증보판 <백일법문>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법문을 실었다. "살아계실 때 그 기세에 놀려 숨 한 번 크게 쉬지도 못하고 그저 어른께 아단맞지 않고 하루가 무사히 지나기만을 바라고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계실 때 좀 더 잘 모시고 많이 묻고 많이 들어야

했는데 그저 무섭다는 생각이 도망치려고만 한 세월들이 너무나 허허롭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다해 시봉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큰스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 같고, 만나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택 스님은 '속이지 마라' 한마디 이후, 다시 찾아간 성철 스님에게서 "니 고마 중 되려"는 한 마디를 듣고 1972년 출가했다. 혹독한 행자생활을 거쳐 계를 받고 성철 스님을 곁에서 20여 년, 포 스님을 떠나보내고 20여 년, 이렇게 40여 년 동안 큰스님을 시봉하며 살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다국적 부처님과 산뜨시리 스님

구미 마하이주님센터 3층에는 법당이 있다. 특별하다면 불단에는 어느 나라에서 모셔 왔느냐에 따라 스리랑카 부처님, 캄보디아 부처님, 중국 부처님, 베트남 부처님으로 구분되는 크고 작은 부처님이 작은 불단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50%는 불교문화권에서 온 노동자로서 자기 나라에서 온 부처님 모습을 보면 매우 좋아한다. 부상으로 아픈 몸으로 센터를 오거나 휴일날 갈 곳이 없을 때 이 곳 법당은 남방불교 열불소리와 향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 나라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기쁨에 두고 온 부모님이 아프지 않기를 기원하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 수 있기를 염원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15년 전 나는 3개월간 헝가리에 머문 적

사람은 출신 국가가 다를 뿐 동료가 사랑하게 되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진지한 모습을 자주 본다. 아침 저녁 틈틈이 동료들이 찾아와 향을 꽂고 합장하는 걸 보면 다국적 법당을 잘 만들었다는 기쁨이 오래 남는다.
더구나 산뜨시리 스님은 사망 노동자의 장례와 제사를 남방불교 열불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힘겹게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을 찾은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된다. 영단에 모셔진 남편 혹은 자식의 사진을 확인하고 주저앉아 숨죽여 흐느끼는 모습은 언제 봐도 힘든 일이다. 이들은 사랑한 노동자의 마지막이 의롭지 않게 열불해주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스리랑카 스님의 기도와 축원은 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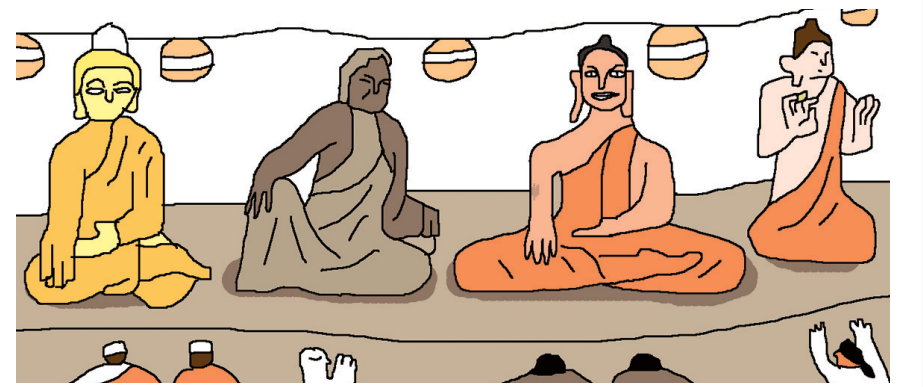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 있다. 부다페스트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작은 절터마을에 당시 한국 스님이 건축한 유럽 최대의 종모양 탑이 있고, 가운데에 한국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절에서 생활했다. 동유럽권에 전파된 불교는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의 큰 호감을 받고 있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 불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한국인이 창건한 절에서 만난 부처님 모습이 어찌나 반갑고 정겹던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던 경험도 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법당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다국적 법당을 2005년에 개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모국어로 근심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스리랑카 출신 산뜨시리 스님을 초청하여 센터에서 노동자 상담과 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도록 연결한 것은 역시나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법당 왼편에는 사랑한 노동자를 위한 영단이 있다. 뜻하지 않은 산재 사고나 교통사고로 세상과의 인연이 다한 이주노동자 사진을 보면 먼 나라에서 와서 고생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이 아프다.

있는 가족의 건강을, 현재하고 있는 위험한 일에 무사 안전을, 아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효험이 있다. 노동자들은 일이 끝난 늦은 시간에 스리랑카 스님을 모시고 자주 법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내가 확인한 어느 사업장은 변변한 의자 하나가 없이 바닥에서 법회를 열었다. 사업주의 종교 이념에 따라 불교권 노동자들의 종교 활동이 제한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제 때 월급을 못 받거나, 아픈데 병원에 못가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산뜨시리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인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
어느덧 스리랑카 스님은 지역 대학교 특수유아교육과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국내 정착 6년 만에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다국적 법당을 찾는 사람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서 다국적 법당이 개설되기를 바랄 뿐이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비의 가피체험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오여래 부처님이 들려주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학봉당 진성큰스님의 40여년 수행결과가 부처님의 가피로 환희롭게 열립니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오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다보여래부처님** : 사법고시, 행정고시, 임시준비, 고시 응시생, 재판 중 사건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득남발원, 결혼인연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사업발전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 불치병 · 우울증 · 빙의 등 병고해탈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 · 제조 · 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오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출연히 나타내신 큰 노스님이 주정자를 쥐신 채 보자 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세 배 큰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지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가던 중 개국 입구에서 아주 볼품없는 못생기고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실고 와서 황동석 재공장에 맡겼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이 다들 어저 왔다. 그 돌을 신중단에 놓고 다기물을 올리기를 위해 옮기려 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누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지정을 말씀드려 큰스님 역시 들려고 하자 공작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리시며 경건과 각종 문헌을 찾아 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용담을 주고 받으셨다. 그리고 석재공장에 전화를 하시어 똑같은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석장이 "큰스님, 왜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원래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다섯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묘색신여래부처님, 셋째 광박신여래부처님, 넷째 이포외여래부처님, 다섯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다. 하시며 "이 모두를 오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 개방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